

## 국내외 주요 뉴스 및 코멘트

## Marinak's Capital Maritime strikes deal for eco MR tanker sextet at Hyundai Mipo

Evangelos Marinakis의 Capital Maritime&Trading이 현대미포조선과 계약 규모를 확대함. 기존 2.28억달러규모 50,000DWT PC선 6척 발주에서 11척으로 확대함. 현대베트남조선에서 건조되어 2022년말-2023년 11월 중 인도 예정임. (Tradewinds)

## 삼성중공업, 셔틀탱커 2척 선박 금융 완료

삼성중공업이 2022년 1월과 3월 인도 예정으로 건조하고 있는 114,000DWT급 ice-class 셔틀탱커 2척의 건조 자금 대출이 마무리됨. Sovcomflot는 10년만기 대출 조건으로 1.1억달러를 대출했다고 발표함. (선박뉴스)

## Los Angeles and Long Beach postpone \$100 container 'linger' fee

미국 LA항과 롱비치항이 컨테이너를 쌓아두면 100달러 벌금을 부과하는 방안 시행을 한달 연기함. 규정이 발표된 이후 두 항만은 컨테이너 대기시간이 -26% 감소함에 기인함. (Tradewinds)

## PC해체량 10년 만에 최고

해체장으로 가는 PC선이 10월말 기준 240만DWT 해체되며 10년만에 가장 많이 증가함. 전체 탱커 해체량은 740만DWT로 2020년, 2019년 수준을 초과함. 2분기 들어 철강 가격 및 해체 가격 상승으로 해체량이 늘어났다고 보도됨. (선박뉴스)

## 中, 인건비 늘어 미니굴착기 수요 342% ↑

전세계 건설장비 시장 30%를 차지하는 중국에서 미니굴착기가 인기를 끄. 2010년대비 2020년 미니굴착기 판매가 +342% 증가함. 급속한 도시화 진행에 따른 인건비 상승으로 소형 공사 현장에서 노동 수요를 대신하는 것으로 보도됨. (연합뉴스)

## 현대로템, 대만 가오슝 2천억원 규모 도시철도 사업 수주

현대로템이 2,078억원 대만 가오슝 시 규모 레드라인 북부 연장선 터키 수주에 성공함. 2018년에도 수주에 성공한 적이 있음. (연합뉴스)